

내러티브 저널

2026년 4월 16일

오늘은 2학년 연극제작실습 실기평가를 참관하였다. 3개의 연극팀과 1개의 뮤지컬 팀이 각자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고,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실기실에 들어가 평가 과정을 지켜보았다. 학생들은 평소 연습해 온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긴장된 모습이었지만, 동시에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는 열정도 느껴졌다.

무대를 바라보며 학생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,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도 더 많이 익힐 수 있었다. 같은 학년, 같은 공간 안에서도 팀마다 분위기와 에너지가 달라 흥미롭게 느껴졌다.

이번 실기평가 참관을 통해 학생들의 연기를 직접 보게 되면서 상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더 많이 생겼다. 단순히 교실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함께 알게 되니 학생들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다. 앞으로 상담이나 수업에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.